

	보도설명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입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담 당 자	유은지 사무관 (02-2100-2653)
	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 오 세 정(02-2003-9014)		김중흥 자율규제기획부장 (02-2003-9370)

**제 목 : 「 ‘공모주 재미물량’ 내달부터 늘어」 제하 기사(10.15일자
매일경제)에 대한 해명**

1. 기사내용

□ 매일경제는 10.15일자 「 ‘공모주 재미물량’ 내달부터 늘어」 제하 기사에서, 다음의 내용을 보도

- ① “이르면 다음주 중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.”
- ② “기존의 개인배정 기준 20%를 바로 올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사주 미달분이 5~10%가량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5%이상 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.”이라고 보도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기업공개시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논의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해외감염병 NOW
---	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